각자의 색으로 담은 제주 풍경의 소중함

김애란·박길주·강수영·민근희·박정자 작가 서울서 전시
바다·풀밭·습지·돌담·곱은달 담아… "제주 가치 알리려"

제주 화가들이 서울 전시 소식을 잇따라 전해왔다. 각자의 색으로 제주의 풍경을 담아내 온 작가들이다. 그림을 통해 기후위기, 개발 등으로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를, 제주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담겼다.

김애란 '바람의 흐름 1'

박길주 'revolution3'

| 2m에 달하는 다섯 작품

서양화가 김애란의 열세 번째 개인전 '바람의 흐름Ⅱ'가 오는 9월 4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전갤러리 기획전시실 2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제주 바다와 파도를 주제로 한 회화 작품 12여 점을 선보인다. 이 중 다섯 점은 가로 2m에 달하는 대형작품이다. 위력적인 제주 바람과 파도의 흔적이 표현된 작품들이다.

작가가 제주 작업실에서 대형작품들을 서울로 옮겨오는 건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실행했던 건 현장에서 느꼈던 폭풍의 에너지를 누군가에게도 절절하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작가는 "자연훼손, 이상기온으로 예기치 않은 기후변화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름다운 제주 자연 풍경을 우리는 언제까지 볼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매우 크다"면서 "제주의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통해 제주 자연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환경 보전적 차원의 전시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 그리움의 대상이던 제주

박길주 작가의 개인전 '불가능한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한 당신의 바탕'이 오는 9월 8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이트센터에 있는 제주갤러리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가 마련한 2025 제주갤러리 공모 선정 작가전인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비정형 캔버스를 통해 회화의 경계를 실험한 회화·영상·조각 등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각각의 작품이 각기 다른 인격과 서사를 지닌 존재로 등장하며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준다.

전시의 중심이 되는 신작 '숨결마다 싱그러움이'는 자연과의 교감을 담아낸 여섯 폭의 대형 회화 작업이다. 제주의 풀밭과 바람의 결속에서 우리가 자연을 마주하는 감각을 되살린다. 도시에서 살아가던 작가가 제주에 정착하며 늘 그리움의 대상이던 자연을 다시 마주한 기쁨을 캔버스에 담아냈다.

|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

제주 강수영·민근희·박정자 작가의 2025 첫 그룹전 '제주로 너에게 닿기를'이 지난달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아트필드갤러리 3관에서 열리고 있다.

강수영 작가는 제주의 습지를 화폭에 담았다. 습지가 자연이 가진 고유한 생명력을 상징하듯 제2공항이 건설로 사라질지 모를 성산의 습지를 하나하나 담아냈다. 민근희 작가는 제주의 동쪽 구부러진 언덕을 지나면 달이 숨어 있고 조용히 나타나는 마을인 '곱은달'을 소재로 했다. 박정자 작가는 도심 속 높은 건물 틈에서도 존재감을 뽐내는 제주의 돌담과 돌담의 돌집, 그리고 돌담 사이 골목길을 비롯해 시내에서 벗어나 정겨운 시골 마을의 풍경을 작가만의 방식으로 그려냈다.

작가 3인은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림에 주제를 다르게 잡고 작품활동을 했다"며 "이번 전시는 아름다운 제주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작은 울림이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담겼다"고 전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고씨주택서 '나비박사 석주명' 도서 큐레이션

오는 10월 15일까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주 원도심에 있는 제주한옥 고씨주택 책방(제주시 관덕로17길 27-1)에서 '제주를 사랑한 나비박사, 석주명'을 주제로 네 번째 도서 큐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이번 큐레이션에서는 제주 나비와 곤충 연구를 비롯해 제주 자연의 독자성과 제주학 정립에 기초를 마련한 석주명 박사(1908~1950)와 관련된 도서와 주요 저서들이 전시되고 있다. 또 석주명 박사의 주요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신문 스크랩, 그의 연구 업적인 나비도감, 제주방언에 관한 도서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이어진다. 박소정기자

31돌 맞은 제주문화원 "기념주간 함께해요"

이달 2~7일 운영

제주문화원은 개원 31주년을 맞아 이달 2일부터 7일까지 '제주문화원 주간'을 운영해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펼친다.

'제주문화원 회원 창작·소장 작품전'이 이달 2~7일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 열리고, '제주생활문화 다큐멘터리 영상상영·토크쇼'도 이달 2일과 4일 오후 7~8시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진행된다.

'제주문화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다'라는 이름으로 포럼과 세미나가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제주오리엔탈호텔 2층 한라홀에서 마련된다. 또 '제1회 탐나는 어린이 동요제'가 오는 6일 오후 3시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린다. 박소정기자

영화觀 3670

반짝이는 회전목마

어떤 영화는 보는 내내 동경하게 된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한 영화를 만나고 왔을 때는 다시 가기 힘들 먼 나라로 여행을 다녀온 것 같다. 어떤 영화는 시작한 지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사랑에 빠지게 된다.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극장 의자에 편안히 기대 있던 몸과 마음을 뒤흔든다. 또 다른 경우는 <3670>같은 영화의 경우다. 어쩐지 친구가 될 것 같은 영화. 그 속을 알 것 같고 나를 알아줄 것 같은 영화. 오해를 반복해도 결국은 이해하고 싶은 영화. 종종 안부를 묻고 싶고 멀리서라도 응원을 전하고 싶은 그런 영화를 나는 친구 같은 영화로 곁에 둔다.

영화 '3670'

영화 <3670>은 성소수자(게이)인 동시에 탈북자로서 이방인의 정체성을 가진 철준(조유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소속감은 때론 누군가를 위축되게 만든다. 철준은 다양한 방향에서 이 감정과 직면한다. 영화의 초반부 누군가와 섹스를 마친 철준은 수줍은 듯한 북한 말투로 상대에게 애프터를 청하지만 다소 매몰차게 거절 당한다. 누가 들어도 서울 깍쟁이 같은 상대의 새침함이 서릿발 같다. 철준이 가진 장점과 한계가 명징하게 제시되는 장면이다. 단련된 육체의 성적 매력을 지닌 철준은 은밀한 관계에서는 선택받을 수 있지만 그가 가진 또 다른 소수성은 관계에서 그 이상을 어렵게 만든다. 아직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 철준에게 탈북민 커뮤니티는 다른 의미로 그를 외롭게 한다. 이 순하고 단단한 청년은 그렇게 남한의 북한 게이로 외로운 섬이 되어간다. 그런 철준이 밝고 쾌활한 영준(김현목)을 만나게 되고 남한의 게이 커뮤니티에 성큼 발을 들인다. 이제 철준은 낯선 파도에 젖는 일이 유쾌한 놀이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파도를 타고 싶다는 욕망 또한 자라난다.

<3670> 안에는 외로움과 사랑이, 쓸쓸함과 우정이, 동경과 연대가 뒤엉킨 채 흘러가는 청춘의 모양들이 네온 사인처럼 형형하다. 퀴어 영화라는 장르적 특성과 이방인이라는 캐릭터의 특수성을 세심하게 살펴 보면서도 영화는 보편적인 감수성의 촉수로 더 넓은 범주를 건드린다. 철준의 결핍과 영준의 결핍이 교차되며 보여질 때 관객들은 스스로의 결핍 또한 그들 곁으로 꺼내 놓게 된다. 혼자의 결핍을 채우는 것은 어느 관계에서나 그렇듯 나의 용기와 타인의 응원임을 잘 알고 있는 영화다. 영화 포스터의 '우리 모두 행복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겠니?'라는 문장처럼 철준과 영준을 포함한 영화 속 인물들은 그들의 세상 안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가며 나와 타인의 결핍을 채워 넣을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고, 영화는 그 시간들을 귀하게 다룬다. 어느 순간 친구가 됐던 타인과 갑작스레 멀어졌지만, 여전히 친구가 아닐 리 없다고 생각하며 엔딩 속 철준의 노래를 따라 불러본다.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만으로도 지속되는 우정이 있다고 끄덕이며.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나를 찾아 떠나는 설레임!
모아투어
NAVER 모아투어
748 2002
기획영업 보증보험 2억원 가입업체
주말 : 010-2949-2002

가고 또 가고
백두대간열차/백암온천 3일
출발일 10/24,10/31 598,000won
제주-안동-영주-울진-경주-제주
설악산/백담사 3일
출발일 10/10 598,000won
출발일 10/7,10/8,10/9 648,000won
제주-양양-설악-고성-인재-양양-제주
여행상담
오사카, 동경, 대만, 오끼나와, 구마모토
복주/하문, 청도 싱가폴, 까오슝, 몽골

홋카이도 가을 단풍 절정 [NO비자]
북해도/삿뽀로 4일 1,690,000won 노옵션
출발일 10/20, 10/26(단 2회) ★ 온천 호텔2박 전세기 제주 ↔ 삿뽀로
제주[11:00출발]-삿뽀로-조잔케이-노보리베츠-도야-오타루-제주[18:00도착]
라오스/방비엥 5일
출발일 10/8 1,390,000won 제주↔라오스
제주-비엔티엔-방비엥-제주

"나를 찾아 떠나는 설레임!"
제주직항
패케지 전문여행사

"세계자연유산 무릉도원 황홀경에 빠지다" [NO비자]
장가계/천문산/천자산 5일
출발일 10/15 1,248,000won
제주-남경-장가계-천자산-천문산-무릉원-남경-제주
남경/양주 3일
출발일 10/10 898,000won
제주-남경-양주-남경-제주
상해/오진 3일
출발일 10/10 898,000won
제주-상해-오진-상해-제주

신이 허락해준 단 5개월, 민족의 영산 [NO비자]
백두산북파/서파 4일
출발일 10/7 1,298,000won
출발일 10/9,10/16 1,198,000won
제주-심양-북파-서파-심양-제주
태국/치앙마이 4박5일
출발일 11/12(단1회) 1,390,000won
제주-상해-치앙마이-치앙라이-제주

제주시 월랑로62(노형동) / 대표이사 : 문인관
사무실 방문시 건물뒷편 주차장 이용
*공통포함사항 : 항공료,텍스,유가할증료(상품가에 포함),호텔,차량료,식대료,입장료, 기사가이드팁(단, 타사패키지는 현지에서 지불합니다.),10명이상출발(15명이상시 인솔자동행). 단 타사 패키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짐 / VAT 별도 등록번호 제337호
*선택경비 :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하여 그에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포함:개인경비,비자발급비(일부지역), 기사가이드팁(일부지역)